

선교 소식/기도편지

김학희, 김수희, 김흥기, 김준기 선교사 / 2018년 9월 15일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1,2)

< 대만에 도착해서 묵상한 말씀 >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2018년 8월 8일에 대만 가오슝(台灣高雄)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동역하시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만에 온 지 지금까지 한달의 시간을 정리하며 선교소식과 함께 기도제목을 나누어 드립니다.

1. 새로운 땅, 정착과 배움

저희 가정은 1999년 12월 결혼 이후로 15회 정도 이사를 했습니다. 지역을 옮기고 거주하는 나라를 바꿀 때마다 참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이제 대만에서 언어를 배우고, 사람을 익히고, 새로운 문화와 기후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언어가 통용되지만 다르게 표현되는 단어들이 있고 글자체도 대륙과는 다를 뿐 아니라, 이 곳(가오슝) 지역에서는 생활어로 쓰이는 '민난어(閩南語)'라는 방언도 익혀야 합니다. “언어와 문화는 분리될 수 없다”는 말은 분명한 것을 느낍니다. 이 곳 대만사람들은 중국 대륙에서 사용하는 발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은 중국이라는 역사 속에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기에, 중국에서 만든 간체자(簡體字)나, 표준어로 쓰이는 북방 발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곳 '외국어 대학(文藻外語大學)'에서 언어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공부한 것을 기초로 더 고급 언어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저희 학급 학생은 총 9명입니다. 미국인 2명, 베트남인 3명, 콜롬비아인 1명, 대만인 1명이 저희 부부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명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또한 다른 반에는 중국에서 유학을 온 스님들도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은 기독교 학교인 '모리슨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있는데, 빠르게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외곽에 위치하여 학교버스로 50여 분 정도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흥기는 이제 10학년(고교 1학년)으로 진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준기는 5학년인데, 밝고 예의 바른 모습 때문에 학생과 선생님들과 빨리 친해지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매우 좋아하는 대만 친구(트라이탄)를 사귀었는데, 서로 집도 가까워 자주 만납니다. 준기와는 이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台灣高雄市美術南三路 255 號 6-1 • +0855(0)905726840 • 07046566770 • servekhh2017@hanmail.net

후원 계좌: (본부) KEB 하나 010-04-06393-629 GMS 김학희/김수희 • (개인) KEB 하나 250-890004-67607 김학희

2. 삶에 필요한 많은 절차들

8월 8일에 대만에 도착해서 이곳에 살기 위해서 거쳐야 할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기본인 ‘거류증(居留證)’을 3주 만에 발급받았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운전면허증, 보험증, 은행계좌, 휴대폰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학교 입학 위해서, 그리고 저희 부부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울러 자녀들의 학교 입학 절차를 위해서 여러 번 학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3주 동안 비가 계속 내려서 정신없이 이 모든 과정을 밟아서 이제야 이곳에서 살아가는 모양새를 갖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택시로 움직이게 됩니다. 버스는 거리에 비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지하철도 있지만 저희가 움직이는 동선에는 노선이 없어서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3. 처음 만난 이웃들

중국에서의 생활이 긴장되어서인지, 이곳 대만에서도 동일한 중국어를 사용하고 생김새도 비슷하여 처음에는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선교사라는 신분을 드러내는 것도, 본명을 편하게 나누는 것도 어색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거주할 집을 빨리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이사짐을 나르고 있는 중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조심스럽게 아주머니가 기독교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선교사 가정임도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그 날 저녁 아주머니는 선물을 들고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도 반갑다는 인사와 함께 저희 가족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기도해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전히 조금은 경직되어 있어서 염려(?) 아닌 염려까지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처음 만나게 된 현지 성도이기에 좀 더 알고 싶어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 중에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도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아저씨도 저희의 초기 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작은 도움을 청해도 앞장서서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친절한 관리 아저씨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고 있습니다. 섬김과 섬김을 먼저 받아서 송구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대만에서는 한국영화 『신과 함께(與神同行)』의 인기가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으나, 대만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신과 함께 2 편’을 관람했습니다. 인간이 죽어서 49일 동안 심판을 받는데, 그 기간 동안 땅에서 행한 일들의 선함을 측정하여 심판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그를 환생(運回)시킬 수 있다는 설정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대만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믿고 따르는 대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

台灣高雄市美術南三路 255 號 6-1 • +0855(0)905726840 • 07046566770 • servekhh2017@hanmail.net

후원 계좌: (본부) KEB 하나 010-04-06393-629 GMS 김학희/김수희 • (개인) KEB 하나 250-890004-67607 김학희

원과 내세론을 따르는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요즈음은 귀신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을 지나, 8월 25일(음력 7월 15일)은 귀신이 절정에 다다른다는 ‘중원절(中元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 곳곳에는 향을 피우고 귀신들을 위해 음식을 차리고 그들에게 절을 합니다. 이를 ‘빠이빠이(拜拜)’라 하고, 심지어는 음력 7월을 ‘귀신의 달(鬼月)’라고까지 부릅니다.



같은 문화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본토는 유물론(唯物論)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가 지배하여 모든 종교적 행위를 근절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많은 성도들이 고통과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만, 반면에 대만과 같은 다신사상(多神思想)은 막는 역할을 한 것이라는 아이러니함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중국에 여전히 핍박은 그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깨어 복음 안에 굳게 서게 하는 저항력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에, 이 곳 대만에서의 또 다른(어지보면 더 어려운) 복음의 확장의 현장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4. 정착 신고식

대만은 중국과는 다르게 일본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은 모습입니다. 거리가 깨끗하고 질서가 잘 잡힌 모습입니다. 제가 살았던 중국이나 캄보디아와 비교되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만의 택시는 조금은 위험합니다. 신호를 어기고 난폭하게 운전을 하거나 때로는 각성제로 사용되는 ‘빈랑(檳榔)’을 씹으며 운전하는 기사들을 만나곤 합니다. 빈랑은 환각성분이 들어 있어서 정신 건강과 신체에 해로운 것으로 판명되고 있음에도 대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빈랑을 씹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남부 아시아를 중심으로 빈랑을 씹는 사람들이 10억이 넘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와서 2주가 넘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가오슝 북쪽에 있는 타이난이라는 곳에서 GMS 선교사 모임을 마치고 기차를 타고 가오슝으로 돌아와서, 기차역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연세가 많으신 어른이셨습니다. 알고 보니 80세나 되신 할아버지였는데, 주의력이 부족하여 그만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앞 타이어는 휠이 뒤틀리고 펑크가 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뒷자리에 앉았던 준기가 조금 다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준기는 택시를 타면 긴장하고 안전벨트를 항상 착용합니다. 처음 중국에 사역을 갔을 때에도 공항 가는 길에 추돌 사고가 나서 당시에는 4살이었던 흥기가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 곳 대만에서도 신고식을 한 것 같습니다.

5. 신앙 정착

자녀의 신앙정착을 위해서 이곳의 ‘가오슝한인교회’에 3주간 출석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곳으로 와서 살아간 한국인들이 계시고, 이곳에서 태어나서 한인 교회를 30년 넘게 지켜오고 있는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한국학교(초등학교)와 나란히 위치한 한인교회는 대만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사님(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이 선교의 목적에 따라 목회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대만으로 이사를 온 다음 날부터 청소년부 수련회에 참석한 흥기는 교회에 빨리 적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낮예배에서 기타 연주로 예배하고 있고, 청소년부에서도 찬양인도를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대만선교는 대만현지교회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대만교회를 통한 선교동원을 위한 사역의 방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김학희 선교사는 2주 동안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섬길 교회가 정해지면 김수희 선교사와 함께 현지교회에 출석할 계획입니다.



6. 기도 제목

하나. 언어와 대만의 문화 그리고 대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움, 함께 사역할 교회와의 만남과 대만 기독교와의 협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둘.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게 하신 대만의 영혼들에게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 언어연수 반 학생들과 교수들, 김준기 친구 가정, 아파트 관리인과 집주인!

셋. 대만에 깔려 있는 다신사상과 물질만능주의가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대만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의 상태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통해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넷. 10월은 대만 동부(타이동, 화롄) 사역을 돌아보며 교회개척 및 복음전파 사역의 현장을 정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동부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진윤숙 선교사가 섬기는 사역의 현장과 그곳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진과 태풍 지역)

다섯. 대만 GMS 선교사가 (전체 14 가정) 협력하여 대만의 복음화와 대만을 통한 선교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